

2015 년 11 월 8 일 주일 예배 “야고보서(3) 시련에 승리할 때” (약 1:9-18)

<도입>

시련(시험)은 인간 내면에 갈등을 일으키고, 수치와 두려움을 증폭하고 불안정하게 만드는 사건이나 상태입니다. 그래서 같은 일이라도 어떤 사람에겐 시련이 되고 어떤 사람에겐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시련이든 이길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습니다. 인내하고 위로부터의 지혜를 구하여 담는 삶입니다.

[1] 시련을 허용하시는 하나님과 시련의 목표

시험 받을 때 하나님께 시험 받는다 하지 말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사실이 아니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하지 못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시험을 허용하시는 것이지, 결코 직접 우리를 괴롭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대항하는 사탄의 악한 세력과 인간의 죄가 우리를 괴롭게 합니다. (탐욕 → 환경 오염 → 생태계 파괴와 질병; 질병은 악한 세력과 죄로 말미암음)

하나님께서 시험을 허용하시는 목적은 이 과정을 통해 스스로 주님께로 돌아와 성장(성숙)과 유업의 축복을 얻게 하시려 함입니다. 내 잘못으로 말미암지 않은 시험과 저주가 임하더라도 거기서 스스로 하나님을 찾고 신세계의 열림을 경험하는 진짜 축복을 발견하기를 고대하십니다. 이것을 경험한 대표적 성경 인물은 욥입니다. 욥은 악하고 소용돌이 치는 사건들 속에서 푸념도 했지만 결국 인내했고 지혜를 구했습니다. 그래서 욥기는 구약의 지혜 문학에 속합니다.

이 지혜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이웃을 향하여 생명의 풍성한 교통의 자리에 이르는 것입니다. 생명의 교통 = 내가 상대를 위해 베푸는 진정한 나눔과 격려 또 서로 사랑을 공유하는 것을 말합니다. 결국 진정한 하나됨의 목표를 위해 가게 하는 것이 지혜의 목적입니다.

9-11 절(2-8 절의 해설)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낮은 형제 = 비천한 환경의 사람. 이들이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가난이 축복이어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구원하심으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높여주셨기 때문입니다. 이들의 처한 가난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게 하여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을 가지게 하였습니다.

부한 자들에게도 자랑 할 것이 있습니다. 부 때문인가 아니라, 낮아질 수 있는 기회가 열렸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가난한 자를 위해 존재하신다는 복음을 받고 하나님 편에서 그들을 돕고, 그들과 같이 낮아질 때 복음의 수혜자로서의 길이 열립니다. 말하자면 복음 때문에 기뻐서 어떻게 도울까... 지혜를 구하는 삶을 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자는 낮아짐으로 축복을 얻습니다. 가난한 자나 부자나 각자의 상황 속에서 인내하고 지혜를 얻을 때 서로를 높여주고 교통하여 생명의 나눔이 풍성해집니다.

[2] 시련을 승리할 때 누리는 면류관

시련이 끝난 후에 오는 두 가지 종류의 기쁨이 있습니다. 첫 번째, 그냥 끝났다는 안도감과 안심입니다. 넋두리와 불평으로 지냈지만 끝이 나니까 기쁜 것입니다. 시험을 통해서 성장하지 못했습니다.

두 번째, 야고보가 말하고 싶은 면류관입니다.

12 절 ‘시험을 참는 자는...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는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시험을 참으며 지혜를 구하여 얻고 생명의 교통이 있는 자들에게 주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선물 안에는 하나님의 인정과 기쁨이 있고, 자신에게는 성장과 성숙의 기회가 됩니다. → 영혼의 만족

면류관은 시간적으로 두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하나는 완성될 하늘에서 받을 면류관, 또 하나는 이 땅에서부터 받는 면류관입니다. 하늘에서 받는 면류관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기록을 볼 수 있습니다.

계 2:10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네게 주리라”

벧전 5:4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면류)관을 얻으리라”

딤후 4:8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면류관은 시련이 점철된 나의 인생을 주님 앞에 합당하게 살아냈다는 확신을 갖게 할 것입니다. 이보다 기쁜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나를 나로서, 또 나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서 순수하고 진실한 만남이 있을 때, 나를 인정하여 주시고 기뻐하심, 이것이 면류관입니다.

벧전 1:7 “너희 믿음의 시련이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이 면류관은 이 땅에서 내가 얼마나 인내하며 지혜를 얻는 삶을 살았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 얻는 면류관은 시련 속에서 주어지는 지혜입니다. 이것은 내적이지만 경험적이고 실질적입니다. 이런 지혜를 얻고 산 사람은 닦았던 시련을 은혜롭게 이겼으므로 돌아보며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은 어떤 시련이 닦칠까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물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기쁨으로 말미암아 구비된 속 사람의 강건함이 있기 때문에 한 단계 더 큰 league 에서 활동하게 됩니다. 더 높은 수준의 섬김을 위해 무장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12 절에서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3] 으뜸가는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17-18 절. 첫 열매: 시간상으로 처음이라는 뜻이 아니라 특권과 영광과 탁월성에서 첫째라는 뜻입니다. 창조의 세계에는 장엄한 자연, 그리고 동식물의 다양한 존재가 있지만 인간이 으뜸의 자리를 갖는다.

여기서 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주님의 자녀로서 새로 태어남**이 중요합니다. 감동적 예술, 혁혁한 기술, 탁월한 의학보다 더 나은 것은 말씀으로 새로 태어남이며, 이 새로 태어남은 죄와 수치를 거두어서 인간의 참 품위를 높여 줍니다. 이것이 재창조이며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시련을 이기고도 넉넉한 존귀한 존재는 바로 주님의 자녀들인 것입니다.

2015 년 11 월 8 일 주일 예배 “야고보서(3) 시련에 승리할 때” (약 1:9-18)

- 내게 시련이 닦칠 때 나는 무엇을 추구하며 어떻게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찾는지 생각해 보고 말씀해 봅시다. 야고보는 인내와 지혜를 강조했는데, 나는 이 방식을 얼마나 실현하면서 살고 있습니까? 나 또는 주변에서 야고보 방식으로 시련의 승리에 이른 예를 알고 있습니까?
- 인내하며 지혜를 구하는 삶은 목표가 뚜렷합니다. 공동체 안에서 생명의 교통, 즉 하나됨을 이루는 것입니다. 지혜가 빛이 나기 위해서는 나를 넘어서 타자와 함께 교통하는 자리에 이르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내와 지혜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낮은 자와 부한 자가 서로 자랑하는 자리에 이를 수 있음을 말했습니다(9-11 절). 당신이 지금 하나됨(생명의 교통과 나눔)을 위한 지혜를 구하고 있다면 무엇인지 말씀을 나누어 보십시오.
- 면류관은 나의 인내와 지혜의 삶을 보시고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기뻐하시며 주시는 상, 선물, 유업(기업) 입니다. 어떤 구체적인 형태인지는 아직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의 사랑의 인정과 기쁨이 새겨져 있는 것임에 분명합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도록 애쓰십시오. 그러기 위해서 나는 피조물 중에 으뜸되는 자임을 자각하고 넉넉한 내면의 공간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야고보가 갖고 있는 이 영적 자부심을 나 또한 가지고 있습니까?